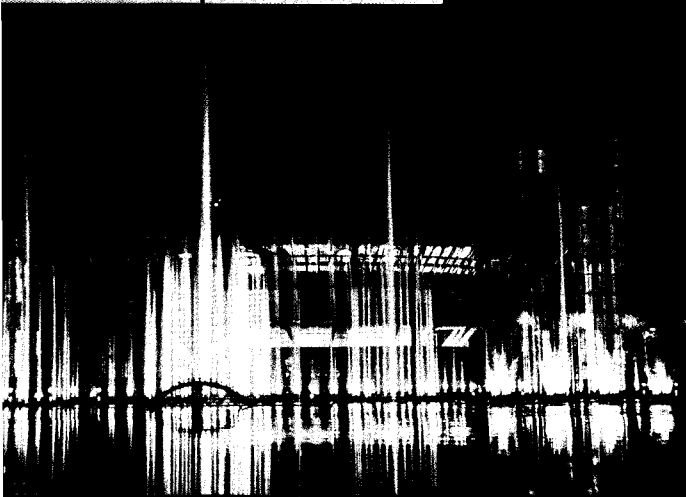


Photonics M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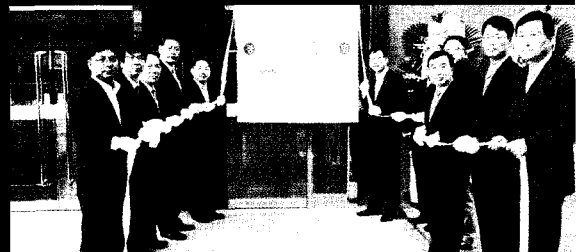
광산업동정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2010년 4월 2일부터 38일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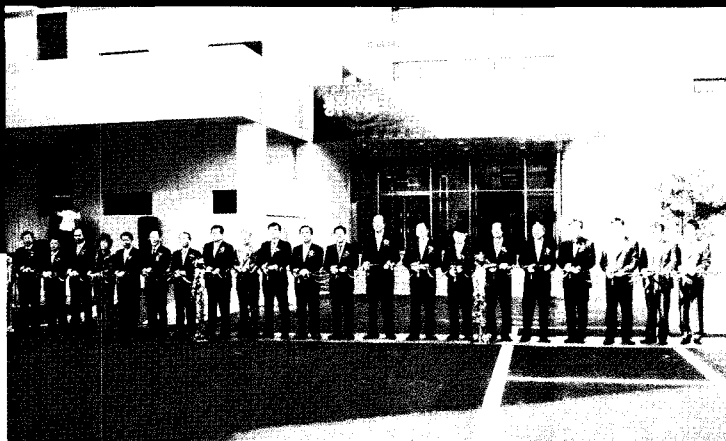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친기업 정책수행
위한 협의회 발족



▼한국광기술원, U.I.인증
시험평가기관 현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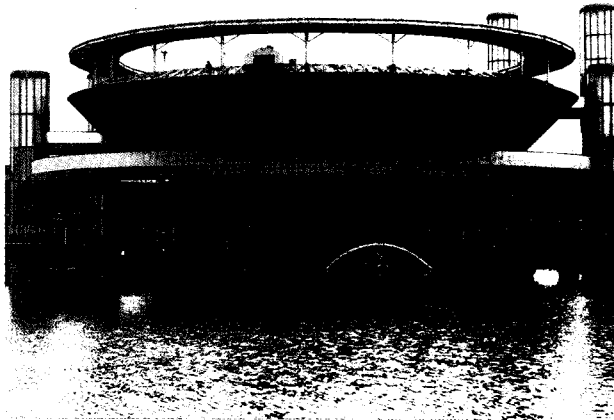


광주 광산업 기업지원 허브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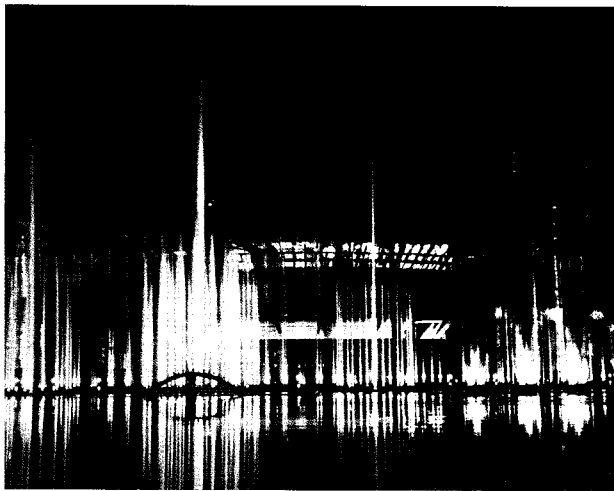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 2010년 4월 2일부터 38일간 개최기로 확정



[빛·주제영상관 전경]



[빛·음악분수 전경]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작년 9월 잠정 연기했던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를 재개하여 금년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38일간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하기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는 세계 최초로 빛을 테마로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8일간 광주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신종플루 국내 감염환자가 확산되면서 일반대중이 일시에 모이는 대규모 지방

자치단체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정부의 지침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판단에 따라 행사개최 1개월을 앞두고 부득이 행사를 금년이후로 연기하게 되었다.

행사 재개시점을 금년 4월로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신종플루 백신접종 본격 실시 등으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12월 11일자로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일선학교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진정국면에 이를 것 이라는 의로계 전망과 함께 2010년도 국내 주요행사 대부분이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과다 경쟁이 예상되고 일선학교 봄 소풍 및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농한기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가을철 보다는 봄철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행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최시기 차별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당초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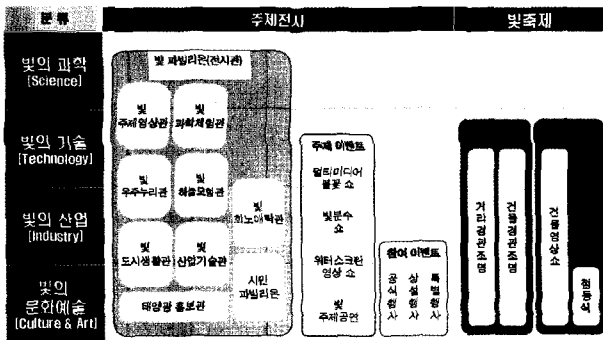


[변경 명칭]

아울러, 당초 명칭인 '2009광주세계광엑스포'를 '2010광주세계 광엑스포'로 변경하여 기존의 로고타입을 수정하였으며, 행사 구성면에서는 이미 개최 완료한 산업전시와 전시컨퍼런스 행사를 제외하여 당초 3대행사(주제전시, 산업·전시컨퍼런스, 빛축제)에서 2대행사(주제전시, 빛축제)로 재편하였다.

또한, 당초 행사기간(28일간)중 상시적으로 개최기로 했던 '빛 축제'는 단기간 특별 이벤트로 변경하여 4월 9일(금)부터 4월13일(화)까지 5일간 구도청 등 구도심 일원에서 점등식을 비롯해 거리 및 건물 경관조명, 건물 영상쇼에 퍼포먼스를 가미한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엑스포 행사 연기방침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빛 주제영상관(Lumi-Bowl)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 9월말 완공되어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같은 시기에 완공된 빛·음악분수는 12월 5일까지 매일 밤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진한 감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국제적인 신임도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빛도시연합(LUCI) 2009 광주연차총회 또한 예정대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개국 29개 회원도시 국내·외 빛 전문가 106명이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정기총회, 시상식, 컨퍼런스 등 공식행사와 광주 잣고개 야경관람 등 광주·전남지역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광주가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금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의 7가지 핵심 콘텐츠를 꼽고 있다.

- ① 국내최초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TM-14) 실물전시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탑승했던 우주선과 동일 모델임
- ② 과거 실전 배치되었던 공군 전투기(F-5) 탑승 및 가상현실 파일럿 체험
- ③ 3D 입체영상으로 만나는 애니메이션(Seed Light) 관람
- ④ 시민과 빛아티스트들이 창조하는 빛·예술 체험 (시민파빌리온)
- ⑤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빛의 과학
- ⑥ 세계적인 빛의 거장 알랭골로 연출의 빛 축제
- ⑦ 빛과 소리, 뿔의 아름다운 향연, 빛·음악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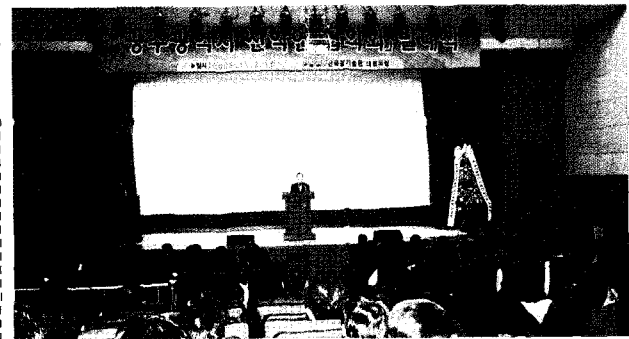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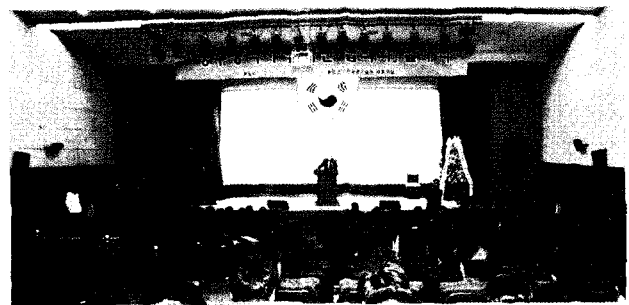
이와함께 금년에 재개되는 2010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는 관람객 130만명을 목표로 주제전시장은인 광주상무시민공원 228,822㎡ (약 69천평)에서 5월 9일까지 112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1월까지 변경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사장 기반시설 및 전시관 재정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을 재개하여 당초보다 많고 품격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총관람객 130만명 (주제전시장 112, 빛 축제 18)

광주광역시, 친기업 정책수행 위한 협의회 발족

• 11월 23일 산학연합회의 발족식 개최, 연구성과 사업화 연계 구심적 역할



광주광역시가 친기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회' (협의회장 전영복)를 발족했다.

'산학연 협의회'는 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이 교류 참여하고 협의회에 총괄위원회와 광통신, LED, 광응용, 자동차, 전자, 디자인, 금형, 신재생에너지, 우리밀산업 등 9개 산업별 협의체를 두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광주R&D특구내 콘텐츠 발굴, 광주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신규 사업기획, 핵심·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회는 개발의 수요자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수행시스템으로 마련됐다.

특히, 협의회는 R&D특구내 산학연 상호 협의기구로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광주의 미래 변화를 선도할 거점인 광주 R&D특구 지정을 앞두고, R&D특구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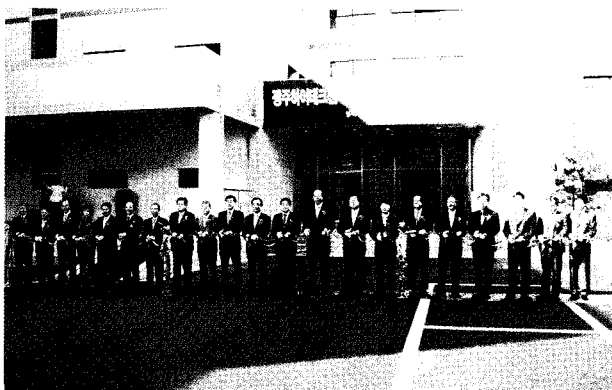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에는 그동안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금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디자인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세계적인 광산업단지 등 전략산업육성클러스터를 구축한 바 있다.

협의회 발대식은 지난 11월 23일에 한국광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의 축사와 김용환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의 '지역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발표 및 전영복 협의회장의 '산학연 협의회 활동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시 산학연 협의회가 광주R&D특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내 연구성과와 사업화 연계, 기업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정책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光산업 기업지원 허브 탄생

- 광주 하이테크센터 II단계 및 광응용연구집적센터 건립
- 광산업 관련 기술지원 확대 및 R&D 기능 대폭 보강



우리나라 광(光)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광기술 R&D 및 벤처집적 기능을 고루 갖춘 '광주 하이테크센터 II단계'가 준공되어 기업들의 기술력 확충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 이하 '산단공')은 11월 6일 광주광역시 대촌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박봉규 이사장과 김재균 국회의원, 강박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나승식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광주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하이테크센터 II단계 및 광응용 중소기업 연구집적센터' 준공행사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하이테크센터 II단계 사업은 광주 지역 첨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성장기반을 위한 산업집적시설로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 지난해 4월 착공했다. 이번 준공된 하이테크 II단계는 지난 2004년 건립된 하이테크센터 I단계 건물과 연결된 벤처집적 및 연구지원시설이다.

하이테크센터 II단계는 연면적 10,953㎡(부지 9,227㎡)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공장시설(5,966㎡) 및 광응용 연구센터 시설(3,755㎡), 지원시설(1,232㎡) 등으로 이뤄져있다. 총 24개실 규모의 공장시설에는 (주)도시환경ENG(대표 공종현) 등 광산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유망기업들이 입주 시작했다.

광응용 연구센터는 광주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광산업 성장 인프라 및 광 관련 기술을 토대로 기술력 확대와 활발한 기술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연구집적시설이다.

지난 2007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클러스터추진단은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R&D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광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연구개발역량강화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이미 입주가 마감된 이 시설에는 광응용산업 분야의 연구소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광주 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허브로서의 역할을 펼치게 된다.

또한 광응용 연구개발 핵심장비 총 23종 27대가 설치되어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산단공은 이번 광주하이테크센터 II단계 및 광응용연구센터 준공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업지원기능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지역의 광산업체 육성 및 기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두 330여 광산업 관련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광기술원 등 광산업 관련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도 인접해 있어 광주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산·학·연 협력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준공행사에서 “광주 하이테크 센터 II단계와 광응용센터가 광주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광산업 및 응용기술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이날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은 물론 당초 야외행사 계획을 실내행사로 변경, 절감된 비용 약 3백여 만원을 연말 지역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키로 했다.

한국광기술원, UL 인증 시험평가기관 현판식 개최

• LED 조명제품의 UL/CE 인증 시험 본격 추진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은 UL의 한국 내 지정 심사기관 자격 획득과 관련한 UL 인증 시험평가기관 현판식을 2009년 11월 24일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UL KOREA 송주홍 사장, 광주광역시 이장환과 학산업과장, 광산업체 대표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현판식 이후 시험인증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UL인증 시험평가 기관 획득을 통해 UL 1993/935/8750 규격에 따라 LED 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LED 드라이버 등의 UL인증 및 CE인증 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북미나 유럽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내 광산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박종혁 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팀장은 “이번 UL 인증 시험 평가 기관 지정을 통해 UL 인증 및 CE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인증 비용 절감 및 획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업체 수요에 따라 일본의 PSE 인증 및 중국 CCC 인증 등 해외 인증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 인증기관이며, UL에서 제정한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됨.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음. (www.ul.co.kr)

*CE Marking

CE 마킹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유럽 지역의 법규 또는 지침이 규정하는 각종 필수 요구 사항들을 해당 제품이 충족시킴을 나타내는 유럽 지역의 적합성 마킹 제도임.

*CCC Mark

중국은 2002년 5월, CCIB와 CCEE 시스템을 대신하는 강제적인 제품 인증 시스템 CPCS(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을 발표함. 2003년 8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CPCS 시스템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CPCS 시스템 범위 안의 모든 제품에 대해 반드시 CCC 마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함.

*PSE Mark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DENAN(전자 제품 및 제질 안전)법은 이전에는 DENTOR(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로 불렸으며, 일본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적용됨.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DENAN 관련 법을 관리하고 있으며, DENAN은 SP(Specified Product)와 NSP(Non-Specified Product)으로 분류하여 일본 내 제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SP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승인한 인증기관(CAB)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받아야하는 제품군을 의미하고, NSP는 강제적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받는 인증서는 선택 사항임.